

■ 주요 뉴스: 엔화, 미 달러화 대비 6개월래 최대폭 강세

- EU 집행위원회, 대미 930억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유예기간 연장
- WTO 사무총장,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 '26년 교역이 호전될 소지
- 미국 1월 S&P Global PMI(예비치) 예상 하회,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내주 1월 FOMC, 주요 기술주 실적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영향 주가 강보합[+0.03%], 달러화 약세[-0.9%],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은 지난 이틀간 그린란드 긴장 완화에 따른 반등 후 강보합 유로 Stoxx600지수는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본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로 하락 엔화 가치는 +1.7%, 유로화 가치는 +0.6%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음주 FOMC의 금리동결 전망 속 소폭 하락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2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444.5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6.22원, 1.3% 하락). 한국 CDS 보합

		1/23일	1/22일	전일대비			1/23일	1/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915.6	6,913.4	0.03%	국채 금리 10y	미국	4.23	4.24	-1bp
	유럽	608.34	608.86	-0.09%		독일	2.91	2.89	2bp
	중국	4,136.2	4,122.6	0.33%		영국	4.51	4.47	4bp
	일본	53,847	53,689	0.29%	CDS 5y	한국	21	21	0bp
	한국	4,990.1	4,952.5	0.76%		중국	42	41	1bp
환율	달러지수	97.46	98.36	-0.92%	위험 지표	EMBI+	-	258	-
	유로화	1.1828	1.1755	0.62%		VIX	16.09	15.64	2.88%
	엔화	155.7	158.41	1.74%		WTI유	61.07	59.36	2.88%
	위안화	6.9632	6.9696	0.09%	원자재	구리	594.8	577.9	2.92%
	원화	1,465.8	1,469.9	0.28%		금	4,987.5	4,936.0	1.0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엔화, 미 달러화 대비 6개월래 최대폭 강세(전일대비 +1.7%)

- 엔화는 우에다 BoJ 총재의 통화정책 기자회견 이후 급등락하며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뉴욕 연은에서도 'rate check(대규모 개입 전 시장참가자에게 환율수준을 묻는 절차)'를 실시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폭 확대
 - 카타야마 재무상은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
 - Rate check가 반드시 개입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뉴욕 연은도 이를 실시하며 미일 공조개입 가능성 부상(BMO Capital Markets)
 - 한편,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0.75%로 동결했으며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 경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 다만, 4월은 가격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달이라고 언급하는 등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상존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U 집행위원회, 對美 930억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유예기간 연장

-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EU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을 철회함에 따라 2.7일 만료 예정인 보복조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할 계획. 유예기간은 6개월 연장되며, 필요시 언제든지 재개 가능
- 덴마크 총리는 금요일 아침 루테 NATO 사무총장과 직접 만난 후 그린란드 방문. 그린란드 국민들에 대한 덴마크의 강력한 지지와, 현재의 상황을 외교적·정치적 경로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표명

■ WTO 사무총장, AI 붐에 힘입어 '26년 교역이 호전될 소지

- '25년 상품 무역 증가분의 약 42%가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서 비롯됐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6년 글로벌 교역이 미국의 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

■ 미국 1월 S&P Global PMI 예비치 예상 하회

- 제조업 PMI는 51.9, 서비스업 PMI는 52.5로 전월(각각 51.8, 52.5)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으며 예상(52.1, 52.8) 하회. 유로존 1월 종합 PMI(51.5)도 예상(51.6)을 하회한 반면 영국의 1월 종합 PMI(53.9)는 '24.4월 이후 최고수준으로 상승

- 한편, 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56.4로 전월(52.9)대비 개선되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은 혼조(1년 4.2%→4.0%, 5년 3.2%→3.3%)

■ 프랑스 르코르뇌 총리, '26년 예산안을 둘러싼 두 차례의 불신임 투표 통과

- 세금 및 지출 관련 양보로 충분한 지지를 확보. 2월 중 전체 예산안 통과 시 수개월간 이어진 의회 갈등이 종결될 전망. 다만, 재정적자 비율이 당초 목표보다 확대된 점, 대기업에 대한 임시과세 연장에 대한 비판도 상존

■ 국제유가, 5주 연속 상승(WTI 전일대비 +2.9%, 전주대비 +2.7%)

- 미국 대규모 겨울 폭풍에 따른 원유생산 및 정유공장 가동 차질,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 가능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등으로 상승. 곡물 가격도 미국 한파에 따른 작황 부진 우려로 상승(밀 전일대비 +2.7%)
- 한편 금 현물가격은 온스당 \$5,000에 근접하고, 은 현물가격은 처음으로 온스당 \$100를 상회하는 등 사상 최고치 경신. LME 구리 선물가격은 톤당 \$13,115로 1월초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본토 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에 대한 기준 강화 검토

- 자본시장 및 경제 지원, 과도한 투기 억제가 목적. 잠재적 조치 중 하나로 최소 시가총액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
- 한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시사, 춘제를 앞둔 시장심리 안정을 위한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며 1월 순공급 규모(현재까지 1조위안)는 역대 최대(Bloomberg)

■ 인도 중앙은행, 2월초 대규모 유동성 공급 계획

- \$100억 규모의 달러 매수-루피 매도 스왑(2.4일), 1조루피 상당의 채권 매입(5,12일) 예정. 또한 2,500억루피 규모의 90일 변동금리 환매조건부채권 운영을 실시할 계획

■ 국제에너지기구(IEA), '26년 역대 최대규모(1,850억m³ 이상)의 유럽 LNG 수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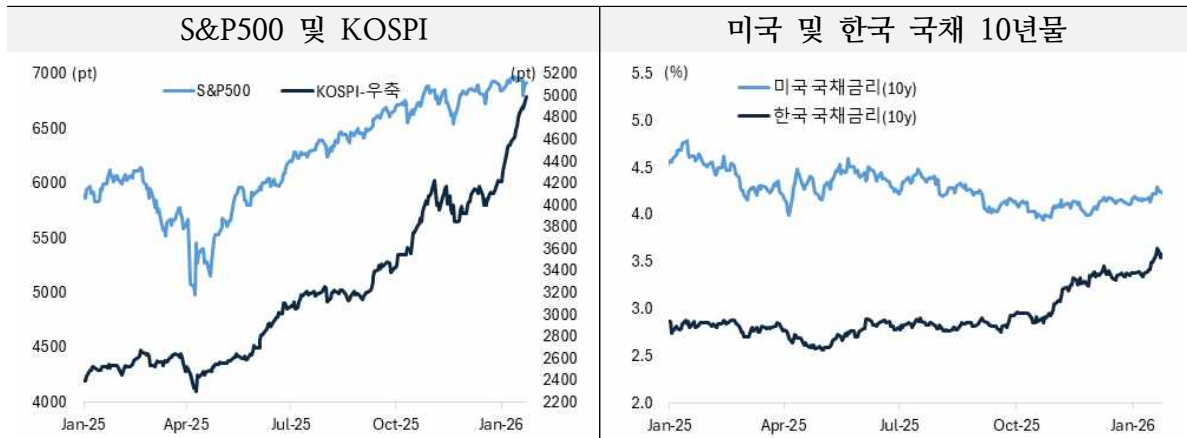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전체적인 천연가스 수요 감소에도 겨울철 고갈된 재고 보충,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크라이나로의 수출 등으로 LNG 수입이 증가할 전망

주요 경제지표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1/26~1/30)

- 미국 1월 FOMC, 미국 12월 PPI 및 11월 내구재주문, 유로존 4분기 GDP(속보치), 독일 1월 HICP(예비치), 중국 국가통계국 PMI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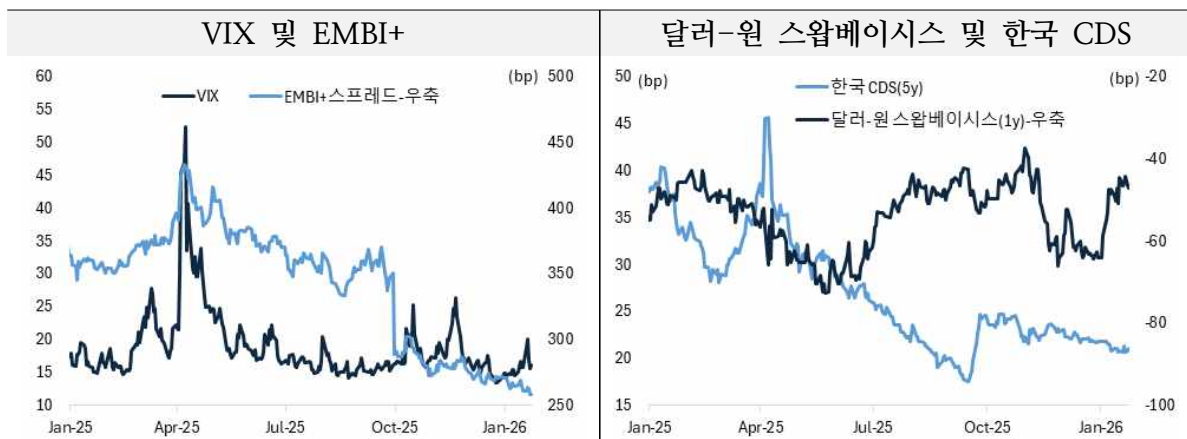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4, E-mail yshwang@kcif.or.kr